

‘모르는 사람’들이 그려낸 일곱가지 이야기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지음

신경숙은 이미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 최근 미국 아마존닷컴이 선정·발표한 ‘2011 최고의 책’ 목록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포함되는 등 이 책은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신씨의 소설집이 8년 만에 나왔다. 그녀의 신간 ‘모르는 여인들’은 작가 스스로 “글을 쓰는 시간이 특별했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인 단편집 7권이 담겨있다.

지난 팔 년 동안 작가가 가장 침울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써야겠다는 뜻이다. 그 팔 년 동안 지인이 상을 당하거나 ‘유영철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침울할 때마다 글쓰기를 통해 탈출구를 찾았다.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이 작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시의 절박함에 대해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는 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책에 실린 일곱 편의 단편들 속엔 익명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려내는 성화(聖畵)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작가의 이런 절박한 상황과 심정은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표제작 ‘모르는 여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계가 제3자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은 어느 날 20년 전 남자친구 채에게서 만나자는 편지를 받는다. 주인공은 과거 연애 시절의 감정까지 되새기며 그를 만나지만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채의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뒤 찾지 말라며 사라진 상태이고, 채는 현재 아내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 자신을 같은 방법으로 떠났던 주인공을 찾았던 것이다.

다른 작품 ‘어두워진 후에’는 연쇄살인마에게 가족을 잃고 떠도는 남자의 이야기다. 이 남자가 세상을 떠돌다 찾아간 산사에서 만난 매표원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집으로 되돌아 간다는 이야기가 큰 줄거리다. 사찰 매표원 여자는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입장권, 저녁 식사, 잠자리, 차비까지 조건 없이 내준다.

남자는 자신에게 방을 내준 여자와 두 동생이 병든 엄마를 중심으로 영겨 잠든 모습을 본다. 이 장면이 바로 작가의 말에 등장하는 상처를 보듬는 일종의 ‘성화’다.

이 밖에 ‘화분이 있는 마당’에는 언어 장애와 식이 장애를 동시에 겪는 한 여자가 전혀 모르는 여인이 대접한 영두화채와 음식을 먹으며 치유되는 과정을 담았다.

‘성문 앞 보리수’에서 오랜만에 독일에서 만난 두 친구가 좁은 호텔방에 누워 오래전에 함께 부르던 유행가를 다시 불러보는 장면도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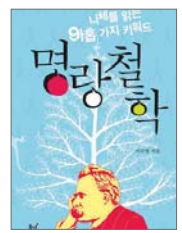
또 다른 소설 ‘세상 끝의 신발’에서 한국전쟁 때 열여섯 살이던 아버지와 열다섯 살이던 낙천이 아버지는 함께 인민군에 끌려간다. 진부한 이야기겠지만, 이 소설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져 아버지를 구한 낙천이 아버지의 일화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세상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인간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문학동네·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작 소설 '모르는 여인들'을 출간한 신경숙 작가. /연합뉴스

니체와 함께 떠나는 ‘명랑’을 향한 여행

‘명랑철학’ 이수영 지음



히틀러 치하에서 전쟁터로 보내졌던 독일 군인들이 배낭 속에 한 권씩 넣고 다닌 책이 있었다. 바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수영씨의 신간 ‘명랑철학’은 ‘니체를 읽는 아홉 가지 키워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원한, 위계, 거짓, 사유, 위버멘쉬(Uebermensch·흔히 ‘초인’으로 번역됨), 긍정, 질병, 공부 등 아홉 가지 키워드로 니체의 철학을 읽어낸 니체 입문서다.

무엇보다 ‘니체’와 ‘명랑’이라는 단어의 결합이 흥미를 끈다. 니체는 강자와 약자라는 위계가 낳는 원한의 논리, 신격화되는 자본주의와 종교, 법이라는 이름

로 자행되는 평등의 폭력성 등을 중요하게 거론한다.

하지만 이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따라가면 삶은 자연스럽게 명랑해지고 윤택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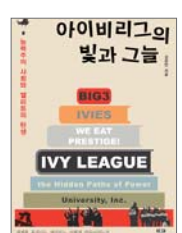
니체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반국가주의자나 이상주의자 등의 가면을 벗기고, 아홉 개의 산을 넘어 니체의 명랑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저자는 “선진국이 되지 못한 지금 이 순간은 무가치하며, 소득 7만불이 되지 못한 이 순간은 초라한 것이라고 자조할 때 우리는 모두 허무주의자가 되는데, 꼭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것으로만 규정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동녘·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능력주의 사회, 누가 엘리트가 되는가

‘아이비리그의 빛과 그늘’ 강준만 지음



국내 외교와 민사고 학생 2000여명이 해마다 ‘지구촌 8학군’으로 불리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비리그에 열광하는 것일까?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그 해답을 ‘아이비리그의 빛과 그늘’에 풀어 놓았다.

하버드·예일·프린스턴·펜실베이니아·컬럼비아·브라운·코넬 등 아이비리그 대학은 각 국 지도자의 양성 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학교를 거쳐 세계적인 리더가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와 정치·사회·경제·문화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곤 한다.

저자는 “교육은 미국의 세속적 종교가 되었다. 아이비리그를 보면 미국이 보인다. 미국 시스템의 핵심이

고스란히 아이비리그에 농축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과연 능력주의 사회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허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엘리트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엘리트 코스는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비밀이 미국식 교육 시스템에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저자는 ‘능력주의 사회와 엘리트의 탄생’을 책의 부제로 달아 놓았다. 또 이들 대학의 성장 과정을 추적해 숨겨진 비밀도 들려준다. 학교의 설립 동기, 설립자의 특징, 재정 총량과 홍보 수단, 학생모집 방식 등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욕망·일탈·위안의 도시를 만나다

‘나한테 미안해서...’ 오영욱 지음



몸의 절반을 가진 붉은색 안경모를 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오기사’는 실로 사랑스런 캐릭터다. ‘오기사 행복을 찾아 바르셀로나로 떠나다’ 등 다양한 책을 통해 오기사는 독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건축가 오영욱의 새책 ‘나한테 미안해서 비행기를 탔다’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욕망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탈의 도시’ 인도 찬디가르,

‘위안의 도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다.

저자는 대학 시절 르 코르뷔지의 책에서 처음 알게 된 계획도시 찬디가르에서는 기존의 인도와 너무나 다른 ‘거대한 일탈’의 공간을 찬찬히 훑어보며 생각에 잠긴다.

오기사의 여느 책처럼 장황하지 않지만 정갈한 글쓰기와 사진, 그리고 펜으로 그린 특유의 그림은 여전하다.

〈달·1만38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 보수를 믿었다, 그러나...

‘보수를 팝니다’ 김용민 지음



대한민국을 발라 뒤집어놓은 ‘나는 팝니다’의 PD 김용민이 보수 정치 세력을 대해부한 ‘보수를 팝니다’를 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무식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뿜는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름을 가진 이른바 보수 단체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빨갱이 적결’이라는 주문을 외면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주장한다.

저자 역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고백한다. 보수의 가치를 믿었고, 보수라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보수가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쓰라린 경험을 몇 차례 겪고 나서야, 보수가 대한민국에서는 환상이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퍼플카우·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꿈이 있는 한 전태일은 도처에 살아있다

‘어느 원발잡이 토끼의 무덤’ 강윤화 외 지음



‘어느 원발잡이 토끼의 무덤’은 40여년 전 자기 몸을 불사른 청년 전태일을 키워도 줬던 소설가 15명이 쓴 짧은 소설을 묶은 책.

단편보다 짧은 ‘손바닥 소설’이 전해주는 과감한 생략이나 집중도 높은 서사,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이 돋보인다.

참여 작가의 면면도 화려하다. 강윤화·김남일·김경은·김도연·김종광·김경하·손홍규·윤이형·윤정모·이시백·이재홍·정도상·조해진·최유태·한상준이 ‘우리 시대의 전태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들은 또 ‘전태일이 도처에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

해냈다.

여행 자금을 만들기 위해 친구의 자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춘의 단면, 공장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사장 오빠에게 여동생이 보낸 진심 어린 충고가 담긴 한 통의 편지, 말문이 트이지 않던 네 살 아이가 촛불집회에서 ‘저리 자자! 찌찌!’ 하고 외치는 에피소드 등 짧지만 울림이 강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이시백은 “더 이상 전태일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를 괴 맺힌 가슴으로 불러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꾼다. 그 꿈이 있는 한 전태일은 도처에 살아 있다”고 말했다.

〈삼이 보이는 창·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거대건축이라는 욕망=영국의 건축비평가 대안 수디이 들려주는 건축과 권력, 건축과 인간 욕망의 역학관계를 담은 책. 저자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데는 감정적,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사상적, 실용적인 이유가 있으며 특히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정치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부지불식간에 건축가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고 말한다.

〈작가정신·2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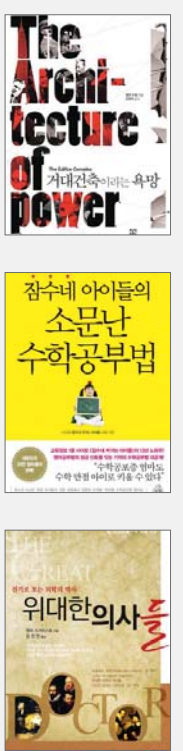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공부법=인기 자녀 교육서인 ‘잠수네 공부법 시리즈’의 저자 이신애씨가 쓴 엄마표 수학 교육서다. 학부모 교육 정보 사이트로 유명한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에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학 공부로 드 땀과 학년별, 단계별로 상세한 지도법을 소개한다. 부모가 자녀의 수학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짚어 준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 3500원〉

▲위대한 의사들=인호테프, 히포크라테스, 아비센나, 존 헌터, 파스퇴르, 오슬러 등의 의사를 빛낸 의사들을 소개한다. 화학자 파스퇴르를 의사로 분류한 것은 질병 예방에 있어서 그가 남긴 업적 때문이다. 의사 면허증이 아니라 인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그의 공이 훨씬 크다고 설명한다. 위대한 의사들의 일생과 가르침 등을 곁들였다.

〈현인·1만8000원〉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국내 최고 이슬람 전문가로 꼽히는 이



희수 한양대 교수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쓴 책. 이슬람을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세계라고 규정짓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지적한다. 9·11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사람이 저지르는 테러는 이슬람 사회의 주류에서 외연당한 소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침이출판사·1만8000원〉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의 철학=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뿌리를 찾아 거기에 깎여 있는 ‘철학’을 고찰한 책. 지금 우리가 지향해 주는 개념과 물건들 그리고 인간의 현실을 바꾼 사상 등을 흥미진진하게 추적한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당연해졌는지를 살펴본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탄생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알마·1만5000원〉

▲피자의 지구사=가난한 나폴리 사람들이 먹던 피자가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됐을까를 추적한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던 피자가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으로 부상한 것은 이민과 관광의 물결 덕분이었다. 나폴리 전통 음식이었던 피자는 이탈리아의 국민 음식이 되기 전에 먼저 미국으로 이주한 나폴리 이민자들의 음식이 됐다. 피자의 ‘제2의 고향’이 미국인 셈이다.

〈휴머니스트·1만5000원〉

▲요리조리 뜯어보는 신기한 명화집 = ‘명화와 함께 하는 숨은 그림 시리즈’로 명성을 얻은 루시 밀클레스에이트 작곡으로 이명 서비나미술관장이 번역했다. 사갈의 ‘나와 마을’, 쇠라의 ‘아니에르의 물놀이’ 블레이크의 ‘장난감 가게’ 등 10편의 명화를 대상으로 숨은 그림찾기를 하듯 그림의 조각을 끼워 맞추면서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워준다.〈토트북·1만원〉

▲물의 침묵=초등학교를 위한 세계 거장들의 그림책 시리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눈먼자들의 도시’ 등을 쓴 포투트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으로 그의 유일한 그림책이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강으로 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살림어린이·1만원〉

▲선 따라 걷는 아이=어린이 전문 도서관 ‘꿈꾸는 교실’이 처음으로 펴낸 그림책이다. 책 표지에서부터 초록 머리를 한 어린이가 선을 벗어나면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오로

시 선을 따라 걸어간다. 책은 선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도 얼마든지 멋지고 흥미로운 수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준다.

〈꿈고출판사·1만1000원〉

▲밤상마다 각축각축=한식의 유래가 적힌 ‘조선 요리학’의 각꾸기 관련 내용을 새롭게 각색한 그림책이다. 조선 정조 임금의 딸인 흥현주 부인이 임금에게 처음으로 각꾸기를 올린 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에는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이 실렸으며 당시 사회상도 만날 수 있다.

〈웅진주니어·1만원〉

▲티모시와 99마리 양=100마리의 양을 통해 요즘 아이들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녹여낸 어린이 철학 그림책이다. 요크셔의 순진한 양 티모시의 털이 거칠어진 것을 안 주인 조지 아저씨는 티모시에게 즉시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여행길에 나선 티모시와 99마리의 양들은 처음 하는 외국 여행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된다.

〈한겨레 아이들·1만원〉

어린이 책꽂이